AI 활용 돌봄 · 복지서비스 제공 '맞손'

전주시-네이버클라우드, 협약 체결… 기술 기반 사업 발굴 · 보건 · 복지분야 등 정서적 지원사업 등 협력키로

전주시가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인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돌봄·복지서비스 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3층 회의실에서 우범 기 전주시장과 하정우 네이버클라우 드 AI 혁신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보건 보지 분야뿐 아니라 AI 기술을 이용한 사업 발굴과 지문, 교육 등 행정 전반에 협력을 강 화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시와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등 정서적 지원 사업(클로바 케어콜) Δ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사업·확산사업 발굴 및 도입 Δ 인공지능(AI)에 대한 적용 사례 교육 등 협력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시가 국가 공모에 선정된 '2023년 진북동 치매안 심 디지털타운 조성사업'과 '2024년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에도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가 활용될 예정이다.

게이를 시키고가 결공될 예정이다.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초대규모 인 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전주시는 지난 13일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보건·복지 분야뿐 아니라 AI 기술을 이용한 사업 발굴과 자문, 교육 등 행정 전반에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든 클로바 케어콜은 대상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건강과 식사, 수면, 운동 등을 AI가 분석 및 모니터 링을 지원한다.

클로바 케어콜은 대상자와 과거에 나눴던 대화들을 기억해 맞춤형 대화 는 물론, 정서적인 공감까지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로 평가 받 고 있다. 시는 향후 이 클로바 케어콜을 통해 진북동 치매안심 디지털타운 조성사 업의 치매등록환자 등 200명과 스마트 경로당 사업의 독거노인 1000명을 대 상으로 주 2회 주기적으로 '몸 건강' 상태 확인과 '정서 건강'까지 돌보게 되는 섬세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 회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

해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유한 인공지 능 기술이 전주시 보건·복지 분야에 활용되면 향후 위기가구 발굴에도 폭 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기술 기반 시 범·확산 사업 발굴 등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시니어 수상 안전요원 28명 배출

전주시설공단, 노인 일자리 창출 · 수영장 안전 강화

시니어 라이프가드 양성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시니어 수상 안전요원' 28명을 배

지난 13일 공단에 따르면 한국경 영지협회 주관으로 전주 덕진수영 장에서 최근 치러진 안전관리 전 문교육과 자격검정 시험에 총 28 명이 합격해 라이프가드 자격을

시험은 전국 최초로 60세 이상의 '시니어' 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영장 안전관리자 구인난 해소 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 이 추진 중인 시니어 라이프가드 양성 과정의 일환이다.

공단은 수영 경력이 2년 이상이 고 접영 이상의 수영이 가능한 만 60세 이상의 전주시민 30명을 교육 생으로 모집해 2주간 교육을 진행 했으며, 이번에 자격시험을 진행했

이로써 공단은 수상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영장에 수상 안 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지 만, 지역에 자격을 갖춘 구직 희망 자가 적어 구인난을 겪어 왔다.

현재 공단은 완산수영장과 덕진 수영장 등 기존의 두 개 수영장과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 라온 체육 센터 등 신규 시설 2개를 더해 총 4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법적 기준과 별개로 시니 어 라이프가드 2명을 각 수영장에 추가로 배치해 노인 일자리를 창 출하는 한편 수영장 이용객 안전 을 감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니어 라이프가드들이 수 영장 이용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으로 공단과 이용객 간 새로운 형 태의 소통 창구로 역할하게 될 것 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 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 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농업인단체와 소통 나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역 농업 발전 과 '강한 경제' 전주 구현을 위해 농 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13일 한국전통 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전주시 농업 인단체연합회 소속 농업인단체별 대 표와 청년농업인 등 12명과 지역 대 표 단체와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단 체 간담회 를 가졌다. 간담회는 우 시장이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시정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주 대변혁'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 추진 중인 하반기 시정 주요 단체 간담회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사는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Δ 주 요 거점별 사업 추진방향 소개 Δ 단체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민선8기 시정 목표인 '강한 경 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의 기 치로 이룬 주요성과 및 시정 주요 현 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주시 농업인단체 및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주시 농정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 농업의 리 더로서 농촌화합과 농업 발전을 선도 하며 솔선수범 하시는 농업인단체장 남들과 청년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전주 대변혁에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전주 놀이주간' 행사 열려

놀이마당 · 체험부스 · 공연 등 볼거리 · 즐길거리 다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이 아이들이 맘 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제공됐다. 시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놀이터 도시 '전주 놀이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놀이주간 행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주시가 어린이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운영된 '맘깻! 놀고 뛰는! 전주 놀이주간에 이어 가을철을 맞아 특별한 놀이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소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소놀이마당 소체험부스 소부대행사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졌다.

먼저 놀이마당에는 Δ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침불을 이용한 침불놀이터 Δ 대형 젠가를 이용한 블록쌓기 놀이존 Δ 각목을 이용하여 서로 지지해주는 상호지지 구조인 다빈치다리 터널 Δ 목재 미끄럼틀 등을 이용한 놀이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에는 Δ페이스페인팅 Δ 젬베, 카혼, 콩고 등 다양한 소리의 타 악기 체험 Δ나무를 이용한 목공놀이 Δ나만의 뜨개목도리 만들기 Δ세상 의 하나뿐인 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탄소중립 실 천과 이동 권리 등 공익을 위한 홍보 부스도 마련됐다.

특히 놀이주간 첫째 날인 14일에는 아동과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가 진행됐으 며, 노송광장 중앙에서는 버블쇼와 솜 사탕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행사 에 재미를 더했다.

이와 관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재인증받은 전주시는 어린이가 행복 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와1

올해의 경우 공원 내 놀이터 3개소를 테마형 놀이터로 환경을 개선중에 있으며, 지난 여름에는 아동들을 위한 도심 속 물놀이장을 전주월드컵광장(덕진구)과 전주대학교(완산구)에서 운영하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아동들의 참여권 및 놀 권리 증진을 위해 Δ 아동정책참여단 운영 Δ 국제 어린이 마라톤대회 개최 Δ 놀이주간 운영 등 어린이가 행복하 게 맘껏 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정신건강의 날 인식개선 한마당 행사 가져

전주시보건소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 센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고사동 중앙실립광장에서 세계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을 기 념하는 '정신건강의 날 인식개선 한마 당 행사 를 진행했다.

매년 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제 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로, 해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 선하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리 고 있다. 올해는 '우리는 누구나 특별해'를 주제로 Δ 정신건강 정보부스 Δ 정신건강 검진 Δ 마음안심버스 체험 등이 진행돼 정신질환자와 유관기관, 시민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와 함께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 날 주간 을 맞아 마음 안심버스 카퍼레이드 홍보와 덕진공 원 캠페인을 통해 정신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 간행사를 진행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장애인 인식개선 위한 적극행정 역량 강화

전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강당에서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대 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 시했다.

'적극 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 선'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은 이승 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가 초청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중심으 로 직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진행하면

서 실천 가능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행안부 주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 수사례와 더불어 전주시의 상반기 적 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탈시설 장 애인 자립기반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실제 자립한 장애인의 영상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적 극행정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 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 가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